

“반도체 산업 새 성장축은 새만금”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클러스터 조성 촉구... 정부·국회·반도체 기업에 건의문 전달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6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 전북 새만금이 최적지입니다'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발표하고, 국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전북 새만금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특정 지역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넘어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생산거점의 분산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생산거점 다변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새만금은 광활한 산업용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 여건을 갖춘 미래 첨단산업의 최적 입지"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이 중요한 산업 환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은 생산시설 집적을 넘어 에너지와 산업이 함께 순환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산업생태계 구축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만금은 지역에서 생산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반도체 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미래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새만금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벨트와 연계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유치는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산업구조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경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전북은 미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산업용수 등 핵심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새만금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성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전북에서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 부처, 국회, 삼성전자, SK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 전달하고, 전북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 부처, 국회, 삼성전자, SK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 전달하고, 전북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요청했다.

김경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전북개발공사, 지역 상생펀드 순항

창업·벤처기업 9곳 신청... 모집 목표 90% 달성

전북개발공사가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조성한 '지역 상생펀드'가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3월 우리는 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억 원 규모의 지역 상생펀드를 조성했다. 이후 도내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한 결과, 모집 목표인 10개 기업 가운데 9개 기업이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해 90%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역 상생펀드는 공사가 보유한 유유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기업 대출 금리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는 금융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협력기업은 시중 금리보다 최대 2.0%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대상 기업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 지원에 따라 기업별로 연간 약 200만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학교·공공급식 지역가공품 정보 공유·협력 방안 논의

남원·장수·순창 지역가공먹거리 생산·소비 소통 교류회 열려

(재)전북바이오통합산업진흥원 전북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4일 남원 그린웨딩타운에서 '남원·장수·순창 지역가공먹거리 생산·소비 소통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학교·공공급식 현장에서 필요한 지역가공품 정보를 생산자와 공유하고, 수요자와 생산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남원·장수·순창 지역 학교 영양교사와 영양사, 지역가공품 공급업체 관계자, 시·군 행정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역가공품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생

산자와 수요자가 직접 만나 제품 정보와 현장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맛과 용량, 가격, 품질, 공급 조건 등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개선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학교급식을 직접 담당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생산업체는 현장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며 제품의 맛과 규격, 포장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오통합원은 이번 교류회를 통해



(재)전북바이오통합산업진흥원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4일 남원 그린웨딩타운에서 '남원·장수·순창 지역가공먹거리 생산·소비 소통 교류회'를 개최했다.

지역가공업체와 학교급식 현장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의 학교·공공급식 공급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상근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원로회원·윤리위원 화합 도모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25일 회장단과 원로회원, 윤리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회원·윤리위원 '화합 역량 강화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원로회원과 윤리위원들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참석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친선 행사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갖는 한편 협회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소재철 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와 성장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새로운 민선 9기 전북도정에 대형 공공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지역 건설업계의 참여 기회

를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핵심 현안인 적정 공사비 책정을 통해 '제값 받는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현실을 반영한 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 회장은 또 "회원 간 화합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법·제도에 대한 교육과 강연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임직원들의 역량을 높여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건설시장 정상화를 이끌고,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족 초청 신입직원 교육 수료식 열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6일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새울림홀에서 2026년 신입직원 교육수료식을 개최하고, 신입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출발을 응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에는 신입직원 93명(경영관리직 12명·기술직 78명·연구직 3명)과 부모 등 가족 95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신입직원의 사회인으로서 첫걸음을 가족과 함께 축하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족 초청 교육수료식을 운영하고 있다.

행사는 교육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



으로 신입직원 대표 선서, 교육 우수자 포상, CEO 인사말, 임명장 및 사원증 수여, 가족과 함께하는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신입직원과 가족들이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전북환경청, 홍수조절시설·재해복구 현장 점검 나서

전북지방환경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6일 대이저수지와 성북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홍수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이저수지는 만경강 유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최대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로, 기존 농업용수 공급 기능과 함께 홍수기에는 홍수조절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저수를 관리 현황과 수문 운영체계, 비상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으며, 관내 주요 농업용 저

수지에 대해서도 집중호우 예보 시 적정한 사전 방류를 실시해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환경청은 이어 원주군과 합동으로 성북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구간 예찰활동 강화와 배수시설 정비, 수방자재 확보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북천은 지난해 홍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재해복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풍수해 대비 배수장 관리체계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전북지역 95개 배수장을 대상으로 시설점검과 예방정비를 완료하고, 신속한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5월까지 도내 95개 배수장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가동훈련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11개 배수장에 대한 사전 예방정비(PM)를 마쳤다.

또 배수펌프와 제진기 등 주요 설비의 고장에 대비해 권역별 전문업체와 긴급 점검·정비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본부 기술지원과 연계한 응급복구 체계를 마련하는 등 비상 대

응 능력을 강화했다.

재해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관리체계도 구축했다. 노후 CCTV 성능개선과 보수를 완료해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기반을 강화했으며, 태양광 전원 이동식 CCTV를 도입해 현장 감시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AI 시범 배수장을 운영하며 선제적인 재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정비 확보도 마쳤다. 엔진양수기 13대와 수중펌프 14대를 사전에 확보해 태풍과 집중호우 발생 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